

보도 일시	2022. 11. 24.(목) 12:00 (금요일 조간)	배포 일시	2022. 11. 23.(수)
담당 부서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	책임자	과 장 이정미 (044-201-7360)
		담당자	사무관 김지수 (044-201-7363)

환경부-건설업계, 건설폐기물 친환경 처리에 힘모은다

- 환경부, 총 23개 기관 및 건설사와 자발적 협약 체결 -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1월 25일 주요 공공기관 및 민간건설사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자발적 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한다.
- 환경부는 건설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8개 공공기관* 및 15개 민간 건설사**와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리 보관·배출 및 순환골재 사용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 * 부산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가나다순)
 - ** 금호건설(주), 두산건설(주), (주)대우건설, 디엘이앤씨(주), 롯데건설(주), 삼성물산(주), 쌍용건설(주), SK에코플랜트(주), GS건설(주), (주)태영건설, (주)포스코건설, (주)한라건설, 현대건설(주), 현대엔지니어링(주), (주)HL디앤아이한라 (가나다순)
- 그간 건설업계에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가 많다는 여론과 함께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해 건설 현장에서부터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 특히, 건설현장에서 폐기물을 혼합 보관 및 배출하는 위반행위는 현장관리를 통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설업계의 인식 개선과 자발적인 노력이 중요하다.

- 이번 자발적 협약은 건설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의 혼합 배출·보관을 방지하기 위한 환경부와 건설업계의 역할을 규정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설업계는 건설폐기물의 적정 배출·보관을 위해 본사 차원의 내부 점검 규정을 마련하고, 임직원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에 적극 노력한다. 아울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확대를 위해 순환골재 사용을 적극 검토한다.
 - 환경부는 건설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의 적정 관리를 위해 건설업계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재활용 확대 활동을 지원한다.
- 이번 자발적 협약을 통해 건설폐기물 분리 보관·배출이 정착되면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뿐 아니라 건설폐기물 감량 및 순환골재 사용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환경부는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공사현장 건설폐기물 분리 배출·보관 안내서(가이드라인)를 제공하고, 관련 교육*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제도적 지원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 * 건설폐기물 분리 배출·보관 및 순환골재 사용 활성화 교육(12.8, 1차교육)
-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해서는 건설업계의 인식개선과 자발적 노력이 중요하다”라며, “건설업계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자발적 협약서(환경부-23개 기관). 끝.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 확대 자발적 협약서

건설업계, 건설단체와 환경부는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 확대를 위해 배출단계에서부터 올바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건설폐기물 혼합 배출·보관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 확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

1. 협약사업자는 건설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종류별 분리 보관·배출 및 이를 위한 보관시설 설치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적정 관리를 위해 노력한다.
1. 협약사업자는 건설폐기물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본사 차원의 내부점검 규정을 마련하고 지사 및 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이 적정 배출·보관 여부를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한다.
1. 협약사업자는 건설현장에서의 올바른 건설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가 주관하는 교육프로그램에 동참하고 임직원 및 건설현장 종사자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에 적극 노력한다.

1. 협약사업자는 자원순환 확대를 위해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생산한 순환골재 사용을 적극 검토한다.

1. 환경부는 건설현장의 올바른 건설폐기물 관리를 위해 “공사현장 건설폐기물 분리 배출·보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하고 협약사업자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 환경부는 협약사업자의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 확대 활동을 행정적·제도적으로 적극 지원한다.

1. 건설업계와 환경부는 이번 협약의 이행상황 점검 및 지속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적극 협력한다.

2022년 11월 25일

〈 참여 기관 〉


부 산 도 시 공 사


시 울 교 통 공 사


서 울 주 택 도 시 공 사


전 남 개 발 공 사


한 국 기 스 공 사


한 국 도 로 공 사


한 국 수 자 원 공 사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금 호 건 설



두 산 건 설


대 우 건 설


디 엘 이 앤 씨



롯데 건 설


삼 성 물 산


쌍 용 건 설


SK 에 코 플 란 트



지 에스 건 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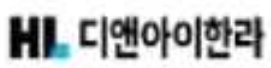

태 영 건 설


포 스 코 건 설


한 화 건 설


현 대 건 설


현 대 엔 지 니 어 링


HL 디 앤 아이 한 라


환 경 부